

발 간 등 록 번 호

75-6470000-000067-08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북도정

2005 봄호



일본 시마네현과 단교 선언

w w w . g b . g o . k r

독도의 옛 모습

독도 경비초사 및 표식제막 기념 4287.8.28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독도의용수비대



1954년 8월 28일(단기 4287년) 독도경비 초사 및 표식제막 기념으로 홍순철 의용수비대장, 당시 울릉경찰서 구국찬 서장, 임상옥 울릉군수 등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은 개인의 영달을 떠난 순수한 애국심으로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10여 차례에 걸쳐 일본의 도발을 물리치고 우리 땅 독도를 지켜냈다.

- 2** **우리 땅 '독도'**
 •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이의근 도지사,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 실행 위한 현지답사
 • 독도는 서기 512년부터 고유한 우리 영토
- 8** **베트남·인도네시아 방문 - 동북아 중심에서 동남아로 교류협력 확대 추진**
 • 대한민국을 새롭게 한 새마을운동, 이제 베트남을 바꾼다!
 •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진출 기반 구축
- 12** **세계로 수출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개최 위한 상호협력의향서 체결
- 14** **경상북도, 기업유치 활동 강화**
 • 기업하기 가장 좋은 경상북도!
- 16** **사계절 휴양지로 각광받는 자연휴양림**
 • 자연휴양림, 웰빙 시대에 주목받는 휴식장소로 부각
- 18** **도정이모저모**
 • 제8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개최
 • 사랑의 온도 께꿘 꿘었다!!
 • 대구·경북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역인사 한 자리에
 • 도지사 추천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생 장학증서 수여
- 22** **알아들시다**
- 24**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 26** **수출로 경북농업의 미래를 개척한다 - 청송수출채소영농조합법인**
 • 여름 파프리카 수출로 부농의 꿈 일궈
- 28** **가 볼만 한 곳 - 아름다운 옛길 '문경새재'**
- 30** **경북의 맛 - 문경 약돌돼지 요리**
- 32** **건강이야기 - 뱃살을 줄이는 습관**
- 33** **경북의 문화유산**
- 34** **도정단신**
- 35** **도의회소식**

경북도정 2005 봄호 (통권364호)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이의근 / 편집인 : 윤정길

발행일 : 2005년 4월 18일 / 인쇄처 : 홍익출판인쇄사 ☎ (053) 356-0088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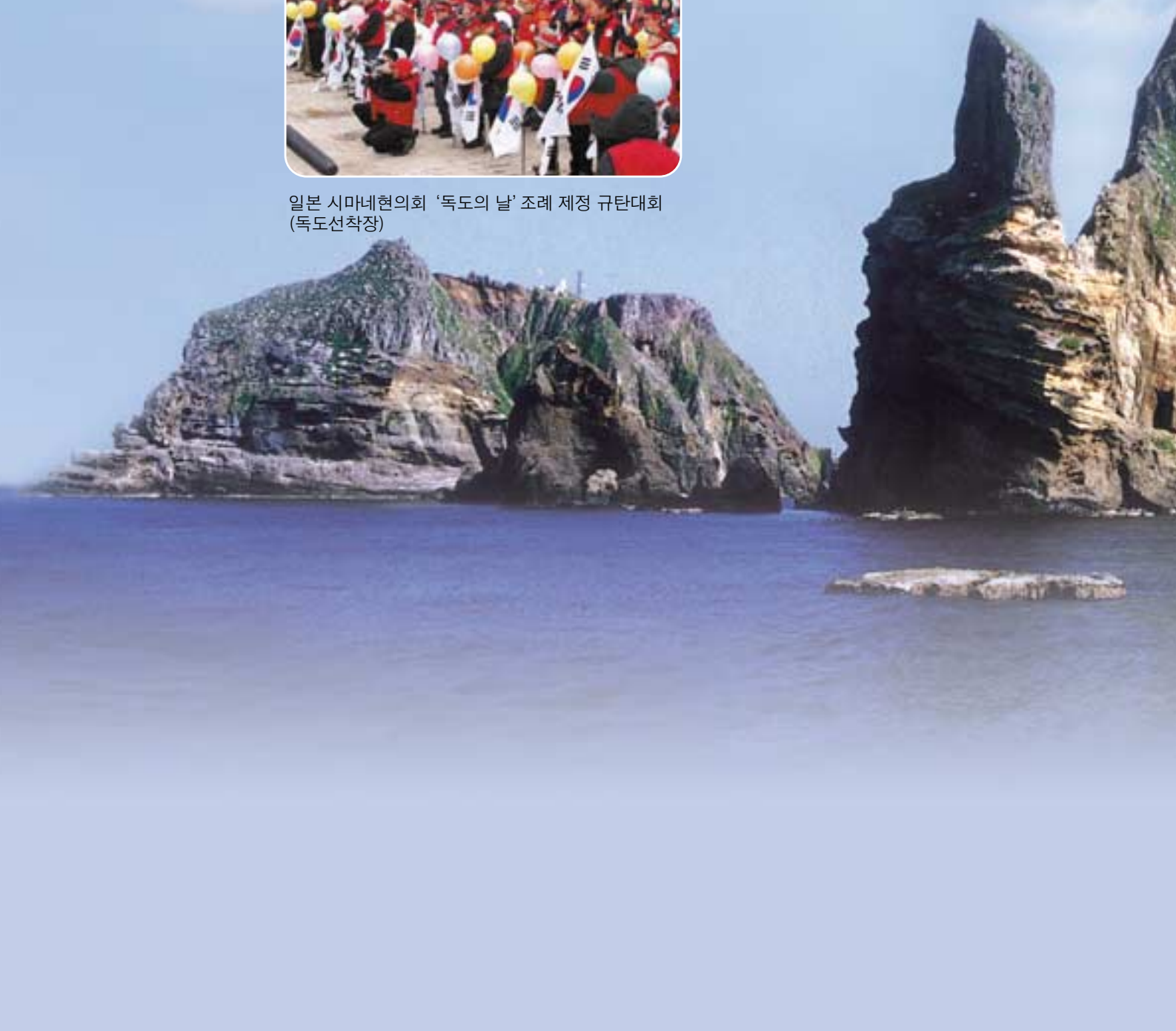
☎ 950-3058, 2031 FAX. 956-4926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일본 시마네현의회 '독도의 날' 조례 제정 규탄대회
(독도선착장)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주민 김성도씨가 거주하던 집으로 지금은 새로운 어민숙소건물이 들어서 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도 독도’를 새긴 표석



이의근 도지사,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 실행 위한 현지답사

최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도발행위에 대해 전 국민의 분노와 규탄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근 도지사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꾸고 활용하기 위한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3월 19일 독도를 현지답사 했다.

이날 현지답사에서는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해 독도관련 전문가가 함께 하여 독도 실태를 조사했으며 현장답사 후에는 독도경비대와 해군 118전대 등을 방문하여 격려했다.

앞서 경상북도는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조례를 통과시키자 곧바로 자매결연 과기를 선언하고 “독도지키기 종합대책”을 발표, 천연기념물 보존을 위해 규제하고 있는 독도 입도절차의 대폭 완화는 물론 독도의 자연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민들의 정주기반시설 확충 등 유인화 사업과 독도 해양과학연구기지 신설, 독도와 울릉 해역의 해양생태 및 해저광물자원조사, 독도와 연계한 해양체험, 관광육성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 땅 '독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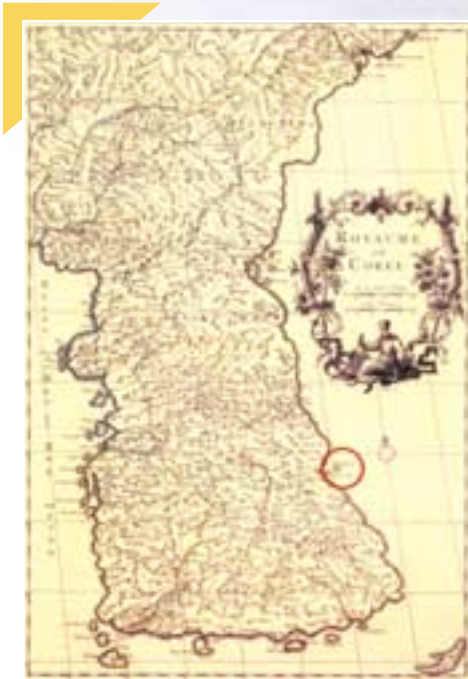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토 최동단 표석



독도경비대장을 통해 독도주민 김성도씨에게 문패 기증

독도는 서기 512년부터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1737년에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 B. B. 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 이 지도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욱 근접하게 그려서 독도(우산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



1785년에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그린 「삼국 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색깔인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 「조선의 것」(朝鮮ノ持ニ)이라고 글자를 써넣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독도!

작은 '돌섬' 이 아니다

지리적 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
- 동경 131°52', 북위 37°14'
- 동도(해발 98m)와 서도(해발 1백68m)의 70여개 바위섬으로 구성
- 총면적 18만5,059㎡



獨島

고유한 우리 영토

독도는 예로부터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려왔다.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우리의 고유영토가 되었다. 「삼국사기」신라본기와 열전,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1432년 편찬), 「동국여지승람」(1481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만기요람 군정편」(1808년) 등 각종 고문헌과 지도에 기록되어 있다.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1877년 일본 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는 곳”이므로 일본 地籍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내무성에 내려보낸 공문서(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수록한 官報
1900년 울릉도와 죽서도(竹島), 석도(獨島)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울릉도군을 설치한다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게재했다.

경제적 가치

- 주변 해역은 “황금어장”
- 명태·꽂치·오징어·상어가 주종을 이루며, 연어·송어·대구 등 회유성 어족 풍부,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미역·소라·전복 등 해양동물과 해조류 풍부
- 다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에서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 매장
- 2004년 수입기준 30년간 사용 가능한 규모



해양적 가치

- 경상북도는 독도 북서쪽 800m 해상에 50평 규모의 해양과학기지 설치 계획
-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기상예보와 해양자원 연구로 무한한 가능성 내재





8 베트남·인도네시아 방문 - 동북아 중심에서 동남아로 교류협력 확대 추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한 새마을운동, 이젠 베트남을 바꾼다!

베트남 타이응우엔성과 자매결연협정 체결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동남아지역 국가로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의근 도지사가 직접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촌을 새롭게 바꾼 새마을운동이 베트남의 낙후된 농촌에 접목된다.

새마을운동의 최초 발상지인 경상북도는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다이떠군 라방면 룡반마을을 베트남의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지정하여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기로 하고 9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새마을회관 건립과 마을 안길 포장, 농수로 설치, 전기시설 교체 등의 사업을 펼친다.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2월 21일 베트남 타이응우엔성을 방문하여 응우엔 반 킴 성장과 자매결연협정 조인식을 갖고 향후 양측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협력 증진에 합의하였다.

이날 조인식은 지난 2003년 “카이 총리”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였을 때 세계적 철강기업인 포스코를 방문, 경상북도의 경제발전에 감동하여 철이 많이 생산되는 타이응우엔성과의 교류를 희망해 성사된 것이다.

자매결연협정 체결에 이어 다이떠군 라방면 룡반마을에서 타이응우엔성장, 주민, 관계자 등 340명이 참석한 가운데 1,500㎡의 대지에 건평 330㎡ 규모의 회의실, 전시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될 새마을회관 건립 기공식 행사가 주민들의 환호 속에 열렸다.

경상북도는 베트남에서 새마을운동이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새마을운동 지도자 등을 초청하여 새마을운동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하는 등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의근 도지사는 부코안 베트남 부총리와 응우엔 푸 빈 외교부 차관 등과 만나 새마을운동 전수에 따른 협조를 당부하고 경상북도와 베트남 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이 행사와는 별도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해외의료봉사단 16명이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진단방사선과 등의 분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 낙후된 의료시설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진출 기반 구축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와 자매결연 체결

이러 2월 24일에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주를 방문하여 자매결연협정을 체결, 양 도-주간 교류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하는 등 동남아지역 진출 기반을 구축하였다.


족자카르타는 2001년 주지사가 직접 교류를 희망하는 친서를 보내와 이번 방문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지난 200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도 민속공연단 “라마야나”가 참가하여 행사를 빛낸 바 있다.

또한 족자카르타는 사금, 원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보드르부드르 사원과 뿌람바난 사원 등이 있어 경제교류는 물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의 협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식행사와는 별도로 2월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역출신이 경영하고 있는 신발제조업체인 PT. Korinesia를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지 진출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해외시장 정보 등 도민기업들의 진출가능성, 시장개척 등 각종 진출경험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 자매결연체결로 경북도가 맺고 있는 자매결연 지역은 9개 국가 9개 자치단체로 늘어나게 되어 지금까지 동북아지역과의 교류협력 중심이 동남아지역으로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개최 위한 상호협력의향서 체결

이의근 도지사, 캄보디아 국왕 수여하는 문화금장훈장 받아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자리잡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수출길에 오른다.

경상북도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데 뜻을 함께 하고, 지난 1월 12일 캄보디아 정부를 대표하여 경상북도를 방문한 생 림루(H.E Mr Seng Limneou) 수상실 정무장관을 비롯한 캄보디아의 문화·관광분야 장·차관 등 일행을 맞아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다.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첫 해외 개최지로 선정된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시엠티주에 있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세계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며, 연간 100만명의 해외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역사유적지이자 관광지이다.

경상북도와 캄보디아 정부는 문화를 주제로 한 세계 최고의 축제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개최를 위해 상호협력하며, 이제까지 축적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공유 기법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전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표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하고, 세부적 사항은 양측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된 실무자 협의회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지난 2003년 10월 이의근 도지사의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연설을 통해 획득한 세계문화엑스포 개최지 선언과 함께 캄보디아 시엠티주정부에서 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희망하면서 체결했던 양해각서(MOU)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엑스포 주제영상 천마의 꿈 수출에 이어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로 해외 수출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경상북도의 의지와 문화적 역량이 베어 나오고 있는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경상북도와 캄보디아 정부는 2006년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양국의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공동추진 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할 기획단을 발족시키고, 행사구성에서 비용 분담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의근 도지사는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위한 의향서 체결 후 캄보디아 국왕이 수여하는 문화금장훈장을 받았다. 생 림루 수상실 정부장관이 전수한 '문화금장훈장'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이기도 한 이의근 도지사에게 「앙코르와트 보물전」 개최 등 크메르문화 진흥에 앞장선 공로를 치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경상북도!

타겟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유치 활동 나서



경상북도는 지난해 7억불의 외국인 투자와 1조3천억원의 국내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투자 유치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레이 4억불, 아사히글라스 2억6천만불, ZF렘페더 3천만불, 오키사 1천2백만불 등 7억불 이상의 외자유치를 이루었고, 현대중공업 2천억원, 포항영일만신항 컨소시엄 3,380억원, 삼광 120억원 등 1조3천억원의 국내 자본을 유치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전국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에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와 미국의 전문컨설팅 회사가 파악한 타겟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인데, 이들 타겟기업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자동차부품업체, 디스플레이 등 IT부품업체, 바이오업체들로서 한국과 아시아지역에 거점을 마련할 기업들이다.

유치 지역별 팀(Team)제 도입

우선 한·일 FTA 타결을 앞두고 일본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유치과내 투자관리팀을 신설하여 일본의 부품·소재기업에 대해 중점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싱가포르와 중국 자본의 유치활동도 새롭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관리팀 내에는 유치지역별로 전담팀이 구성되었는데, 구주지역(유럽, 미주), 아주지역(일본, 싱가포르, 중국), 국내기업(수도권 대기업 등)으로 3팀이 구성되어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유치활동이 가능해져 기업유치 성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확대 계획

또한 경상북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도레이새한, 아사히글라스 등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50년간 부지 무상임대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강화된 인센티브 제공이 투자유치에 주효했다는 판단하에 올해에도 대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투자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경주·포항 등에는 자동차 부품과 신소재산업, 고령·칠곡·경산 등에는 IT, 기계와 연관된 산업, 안동·영주·봉화 등에는 기업유치촉진지구와 연계한 바이오산업 위주의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내기업 유치활동도 한층 강화하여 영주, 봉화의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구미4공단외의 국민임대단지 조성,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유치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 경상북도로 오세요!

경상북도, 7억불 외자유치 축하행사 개최 2005년 투자유치 본격 재시동

경상북도는 2월 3일 구미 센츨리호텔에서 2004년 7억불 외자유치와 투자유치 전국최우수기관 대 통령표창을 기념하고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이의근 도지사, 김관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도레이새한(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 등 외국인 투자기업 CEO 등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초청하여 투자기업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유공자를 표창하는 등 투자유치 결의를 다지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도레이새한 4억불, 아사히글라스 2억6천만불, ZF렘페더 3천만불 등 총 25건에 7억불의 외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국내기업에서도 현대중공업 2천억원 등 10건에 1조 3천억원을 유치함으로써 1만 5천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창출하였고 산업을 고도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자연휴양림, 웰빙 시대에 주목받는 휴식장소로 부각

산림자원을 이용해 직접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웰빙 시대에 맞는 휴식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9개 자연휴양림의 2004년도 이용자 수는 17만1천명으로써 2003년도 13만4천명보다 28% 많은 3만7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 수입금액도 11억1천만원으로 2003년도 7억8천2백만원보다 3억2천8백만원이 늘어났다.

그동안 자연휴양림은 “여름철 휴양지”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계절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장소로 확실히 자리잡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자연휴양림을 펜션, 콘도 등 타 휴양지와 차별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의 휴양림도 단순 숙박시설의 집합체가 아니라 산림이 가진 자원을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개장한 의성 금봉자연휴양림에는 도내 시인들의 시와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일명 「시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시를 좋아하는 이용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용객들이 휴양림 선택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휴양림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문화하고, 휴양림내에서 각종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으로 올해에는 안동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살린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승마와 결합한 영천의 승마자연휴양림, 포항의 비학산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키로 하고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도내 자연휴양림 현황

검마산자연휴양림	국립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054-682-9009
계명산자연휴양림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고란리 산1-1	054-822-6920, 851-6588
구수곡자연휴양림	울진군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상당리 구수곡	054-783-2241
불정자연휴양림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산 71-1	054-552-9443
성주봉자연휴양림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054-541-6512~3
옥녀봉자연휴양림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31번지	054-636-5928
운문산자연휴양림	국립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054-371-1323
장곡자연휴양림	군위군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장곡리	054-380-6317
청송자연휴양림	청송군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054-872-3163
청옥산자연휴양림	국립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054-672-1051
칠보산자연휴양림	국립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054-732-1607
토함산자연휴양림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산 599-1	054-772-1254
통고산자연휴양림	국립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쌍전리 산150-1	054-783-3167
학가산우래자연휴양림	개인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우래리 산 60	054-653-0114

제8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개최
 대상에 근로자부문 원종도씨, 사용자부문 서중호씨 수상

경상북도는 1월 18일 도청 강당에서 이의근 도지사과 성낙오 영남일보사장을 비롯하여 김창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지역경제인, 근로자, 수상자 가족과 소속업체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을 갖고 노사화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14명을 시상했다.



이날 영예의 대상에는 근로자부문 넥스원퓨처(주) 노조위원장 원종도씨, 사용자부문 아진산업(주) 대표이사 서중호씨가 각각 수상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으로 대상 200만원, 금상 15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을 각각 수여하였다.

「화랑영웅 기파랑전」 해외 배급사인 시맥스&아이웍스사 회장단 방문
 해외배급 계약성사에 따른 감사 방문

「화랑영웅 기파랑전」 해외수출 배급사인 시맥스&아이웍스사의 마이클 니드햄회장 일행이 1월 18일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이의근 도지사를 접견했다.



이번 방문은 「화랑영웅 기파랑전」의 해외배급 계약 성사에 따른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사는 시맥스&아이웍스사가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세워 보다 많은 해외테마공원에서 「화랑영웅 기파랑전」이 상영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제작 예정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차기 주제영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 5년 간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화랑영웅 기파랑전」독점 배급권을 갖게 된 시맥스&아이웍스사는 해외배급용 버전작업을 끝내고 「백마의 전설(Legend of the White Horse)」란 제목으로 유럽과 미주지역의 배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랑의 온도 펄펄 끓었다!!
희망2005 이웃사랑캠페인 모금액 6년 연속 전국 최고!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월 20일 도청에서 이의근 도지사, 류창우 공동모금회장, 도내기관장과 공동모금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05 이웃사랑캠페인 모금액 50억원 돌파 기념식을 갖고 모금목표 달성을 축하했다.

1월 19일 현재,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모금 목표액인 50억을 이미 달성함으로써 전국 16개 지회 중 최초로 집중모금기간 순수현금모금액 50억 돌파 기록을 달성하며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기부영역별로는 개인기부가 16억원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으며 사회·학교·종교단체가 10억원(22%), 정부와 공공기관이 1억원(2%), 기업이 22억원(44%)등으로 집계됐다.

경주 천북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공식
고용창출 3천명, 연간 9,200억원 생산효과




경상북도는 1월 24일 이의근 도지사, 경주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천북지방산업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천북지방산업단지는 포항, 경주, 울산지역에 분산된 공장들을 집단화·계열화하고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화산리 일원을 산업단지로 지정하였으며, 2007년까지 872억원을 투자하여 28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부품 등의 업종을 유치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역인사 한 자리에
「대구·경북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대구·경북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가 대구·경북의 정·관계, 경제계, 대학과 사회단체 등 35개 기관·단체장 41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2월 1일 대구 인터볼고호텔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나섰다.

그동안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특성과 비교우위를 고려한 중점유치기관(경북 36개 기관, 대구 26개 기관)을 선정하여 각각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특성화발전 지원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268개 공공기관 중 180~190여개의 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역에 합리적으로 배치하기로 하였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업무협조 약정체결
농수산물 해외시장 진출 위해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키로

이의근 도지사는 2월 1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 정귀래 사장과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조약정을 통해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판촉전,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초청 등 해외프로모션 활동과 수출기반 조성, 컨설팅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는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통해 경북 우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수출관련 기술·정보의 공유와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100% 정부가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농산물 주요수출시장 5개국에 8무역관의 해외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투자기관 고객만족도평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도지사 추천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생 장학증서 수여 대구가톨릭대학교 4개 학과 · 부 8명, 지역 우수인재 양성 앞장



경상북도에서는 2월 4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의근 도지사, 신경돈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추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입학생 8명에 대하여 선발증서와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증서를 수여받은 입학생은 의예과 4명, 약학부 2명, 간호학과 1명, 아동학과 1명 등 모두 8명으로, 의예과와 약학부 입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이 감면되고, 기타 학

과는 매학기 등록금 반액과 기숙사에 우선 입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지난 '99년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와 협정을 맺고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 수준 향상과 지식기반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읍·면 지역 고교생들에게 대학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난해까지 총 81명이 의예과, 약학부와 기타학과에 입학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첨단도시개발위원회 일행 경북테크노파크 방문 사우디아라비아테크노파크 설립관련 벤치마킹 위해

한국형 테크노파크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해 알제리와 이란의 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들이 방문한데 이어 2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 첨단도시개발위원회(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KACST) 관계자 일행이 경상북도를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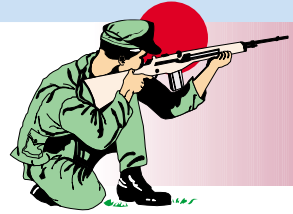
이번 방문은 Dr. Isam Y. Al-Filali 단장(킹압둘아지즈대학 박사)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실세이면서 마카 신도시 개발실무책임자인 Abdulaziz A. Kamel 등 관계자 6명이 동행하였으며, 그동안의 경북테크노파크 조성현황과 테크노파크 사업추진에서 쌓은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였다. 

안동하회마을과 경주양동마을 정비사업에 111억원 투입 전통생활양식이 존재하는 전통문화 체험·관광마을로 육성

경상북도는 우리 전통마을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안동하회마을, 경주양동마을에 111억원을 투입하여 민속사료관 건립, 퇴락가옥 정비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가옥 급·배수시설 보수 등 마을기반시설정비, 안내소 등 관람편의시설 확충 등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안동하회마을과 경주양동마을은 1984년에 중요민속마을로 지정된 이후 퇴락·훼손 가옥 등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만 치중하여 왔으나, 경상북도가 지난해 수립한 「민속마을 보존·활용 및 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민속마을의 원형보존과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의 개선, 나아가서 관람편의시설 확충과 관광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해 민속마을을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조사 6월 30일까지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신청 접수



경상북도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관련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 1차로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피해신고는 일제강점 기간 중인 만주사변(1931. 9. 18)부터 태평양전쟁(1945)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또한 강제동원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 및 신청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자치행정과(053-950-2054) 또는 시·군 총무과(자치행정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접수시에는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붙이면 된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053-950-2054)

점포시설개선자금 등 중소유통업체에 저리 융자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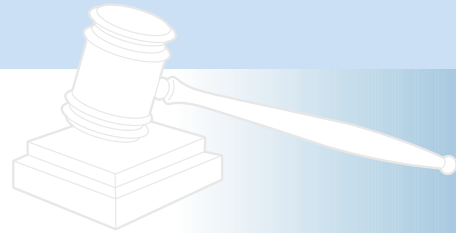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체에 대해 저리 융자지원 사업을 펼친다.

올해 융자지원사업은 7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시장재개발사업, 시장시설개선사업, 공동창고건립사업, 점포시설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시장재개발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3.58%(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융자대상은 도내에서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던 중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거나, 앞으로 중소기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자로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053-950-3252)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담당부서 : 경제교통정책과 053-950-3225)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중재신청을 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언론피해를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2004년 4월 1일 문을 연 상담센터의 법무상담팀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을 무료로 즉시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상담팀은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재신청 상담을 비롯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상담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사후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교육홍보팀은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언론전문변호사가 무료 교육 및 강연을 실시합니다. 교육홍보팀은 언론사, 대학, 기업 등 대상별로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여 해당기관의 교육목적에 맞게 ‘언론피해구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언론 보도피해 구제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조정제도와 중재제도가 모두 도입됩니다.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제도 이외에, 중재부의 중재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가 신설됩니다.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 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재신청 대상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 매체로 확대됩니다.
- 중재신청 기간이 길어집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중재신청은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시정권고 신청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언론보도 피해의 직접적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대표 전화 : 02) 397-3000, 3010, 31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pac.or.kr

2005올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25일간 울진군 왕피천 엑스포공원을 무대로 펼쳐지는 「2005올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는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 등 해외 20여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 농업!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란 주제로 각 나라의 독특한 농문화 전시와 공연, 학술대회 및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마련하여 친환경·유기농산물의 모든 것을 직접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입장권

구분	입장권		요금 (단위:원)	적용범위
	종류	구분		
입장 당일	보통권	보통권 본판매	성인 12,000 청소년 10,000 어린이 7,000	- 만18세~64세 - 만12세~17세 - 만6세~11세
		보통권 예매	성인 10,000 청소년 8,000 어린이 6,000	- 만18세~64세 - 만12세~17세 - 만6세~11세
	할인권	단체 할인권 본판매	성인 10,000 청소년 8,000 어린이 6,000	- 내국인 30인 이상 - 외국인 10인 이상
		단체 할인권 예매권	성인 8,000 청소년 6,000 어린이 4,000	- 내국인 30인 이상 - 외국인 10인 이상
		특별 할인권	성인 7,000 청소년 5,000 어린이 3,000	- 만65세 이상자 - 현역군인(하사이하) - 전 의경 - 국기초수급자 - 4급이하 장애인 - 국가유공자의보호자 1인 - 3급이상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농업,소비자단체 구매시(50매이상)
전기간사용	전기간 통용권	성인 35,000 청소년 25,000 어린이 20,000	- 행사전기간 자유이용	
	무료입장객			- 국가유공자 - 장애인(1~3급) - 단체인솔자(30명당 1인) - 단체관람객유치자

※패키지 : 성류굴 무료입장, 백암·덕구 온천 입장료 50% 할인, 불영사·향암 미술관 입장료 50% 할인

※입장권 예매기간: 2005년 2월 1일~6월 30일

■ 입장권 예매 안내



- 가. 예매창구 판매
- 농협-전국 주요지점(시·군 지부, 지점, 출장소 및 회원조합)
 - 우체국, 국민은행 - 경상북도 및 전국 주요지점
- 나. 인터넷 판매
- 판매처 : 인터파크(www.interpark.com)
 - 예매(접속)방법 - 인터파크 홈페이지 접속(www.interpark.com)후 공연/영화 클릭
→ 행사/스포츠 클릭 → 『2005올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배너클릭

The Land of Life Uljin

2005 Eco-Agriculture / Organic Food Expo, Korea

인간을 지키는 생명 산업
땅속까지 투명합니다!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2005. 7.22 ~ 8.15 경북 울진 왕피천 엑스포 공원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조직위원회 | www.2005ofex.org | 054-780-2005



여름 파프리카 수출로 부농의 꿈 일궈

청송파프리카수출단지 조성으로 세계시장 공략 목표

농업이 위기다. 그러나 위기 때에도 기회는 있는 법, 수출농업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농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청송군 부남면 이현리, 주왕산국립공원 산자락에 위치한 이 마을에서는 청송수출채소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고 웰빙 농산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청송군 부남면 지역은 해발 400~500m의 준고랭지로 일교차가 커 고추, 가지, 토마토 등 가지과 작물을 재배하기 적합하여 고추 등을 많이 재배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주소득원인 고추는 연작장애 발생과 FTA, DDA 등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상대적으로 싼 가격의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작목을 고민하던 중에 우리나라 채소류 수출금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시장 점유율 63%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품목이자 준고랭지인 지역실정에도 적합한 파프리카를 선정, 지난 2003년 경남의 파프리카 재배농장을 견학하고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2004년부터 재배시설 9,200평에 여름파프리카를 재배하여 일본시




장 수출과 국내 대형매장에 납품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파프리카 재배면적 160ha중 87% 정도가 겨울재배를 하고 있는 반면 청송수출채소영농조합법인에서는 여름재배를 선택해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적은 시기에 출하하여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파프리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일본시장의 최대 수요기와도 시기가 맞아 수출선 확보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또한 최근 농산물 소비성향이 고급화·간편화·청정화로 변화함에 따라 각광받고 있는 양액재배를 도입, 토양재배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연작장애 해결과 인위적으로 지상부와 지하부의 환경조절이 가능해져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양액재배는 적절한 수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비닐 등으로 제작한 재배조(베드)에 육묘를 정식한 후 성장을 위한 적당한 성분의 양액을 흘려 뿌리를 적시면서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초기 시설 투자비 소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계화·장치화·자동화가 용이하여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성의 안정화와 수량 증대 등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차세대 농법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바이어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재배환경과 조건을 살피고 난 후 수출물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청송수출채소영농조합법인은 앞으로 파프리카 양액재배로 익힌 노하우를 여름 토마토 등 다양한 작목으로 확대하여 농산물 수출에 더욱 매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북의 우수농산물이 세계시장을 석권할 날도 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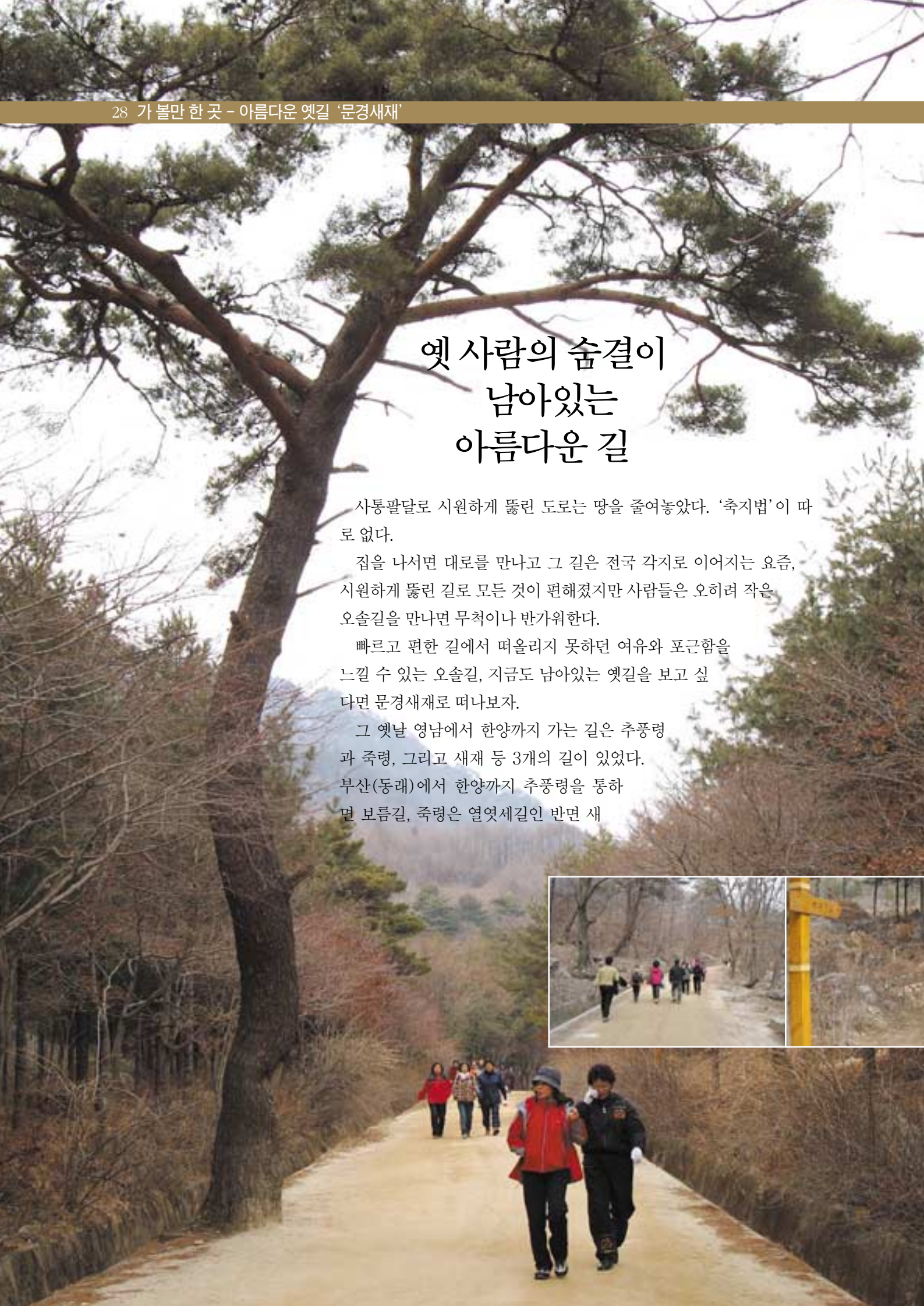
옛 사람의 숨결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길

사통팔달로 시원하게 뚫린 도로는 땅을 줄여놓았다. '축지법'이 따로 없다.

집을 나서면 대로를 만나고 그 길은 전국 각지로 이어지는 요즘, 시원하게 뚫린 길로 모든 것이 편해졌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작은 오솔길을 만나면 무척이나 반가워한다.

빠르고 편한 길에서 떠올리지 못하던 여유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오솔길, 지금도 남아있는 옛길을 보고 싶다면 문경새재로 떠나보자.

그 옛날 영남에서 한양까지 가는 길은 추풍령과 죽령, 그리고 새재 등 3개의 길이 있었다. 부산(동래)에서 한양까지 추풍령을 통하면 보름길, 죽령은 열엿세길인 반면 새



재는 열나홀길로 가장 빠른 길이었다. 특히 과거시험 보러 가는 선비들은 새재길을 고집했다. 추풍령은 낙엽처럼 떨어지고 죽령은 대나무처럼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라나...

문경새재에는 입구의 주흘관과 중턱의 조곡관, 고갯마루의 조령관 등 3개의 관문이 있다.

첫 관문인 주흘관을 들어서면 먼저 유명한 드라마 세트장이 보인다. 2만평의 부지에 궁궐과 기와집, 초가집 등을 꾸며놓아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새들도 울며 넘는다는 험한 고갯길이지만 경사가 낮아 힘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두 번째 관문인 조곡관까지 이어지는 길가에는 옛 관리들이 먼길을 오갈 때 숙식을 제공하던 조령원터와 신·구 경상감사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던 교귀정(交龜亭), 서민들이 지친 몸을 쉬어가던 주막터 등 볼거리가 군데군데 있다.


조곡관을 넘어서면 숲은 깊어지고 한층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경새재 아리랑비'를 지나 한참을 오르다 보면 그 옛날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이 급제를 기원하던 '책바위'가 있다. 요즘에도 이 책바위 주변에는 온통 소원을 적은 종이들로 마치 서낭당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소원지에는 가족의 건강과 각종 시험의 합격을 기원하는 내용이 대다수이지만 '복권 대박(?)' 등 이색적인 주문도 눈에 띄어 웃음을 자아낸다.

새재의 정상인 조령관에 올라서면 이제껏 올라오던 골짜기와는 달리 탁 트인 전망이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관문을 넘어서면 충청도 땅이다.

요즘에는 자동차로 이화령을 넘어 새재의 정상인 조령관까지 와서 내려가는 코스를 택하는 이들도 많다 하니 그야말로 한없이 편해진 세상이다.

잠시 다리를 쉬었다가 되돌아 내려오는 길에는 오를 때 지나쳤던 좁은 오솔길로 한번 접어드는 것도 색다른 운치를 느끼게 한다.

돌아가는 길에는 문경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아보자.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활공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경활공랜드가 가까이 있고, 올림픽 경기 등에서 보던 클레이사격과 기차가 달리던 옛 철길에서 즐기는 철로자전거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특히 4월 말에는 도자기로 유명한 고장답게 도자기축제도 열린다. 





약돌을 사료첨가제로 먹인 약돌돼지! 누린내 없는 쫄깃한 맛이 일품

요즘은 TV 드라마 촬영장으로 더 유명해진 문경새재와 청정한 자연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은 물론 패러글라이딩과 클레이 사격 등 이색 레포츠를 즐기는 매니아들이 자주 찾는 문경시. 이름난 여행지에는 그 지역만의 특색을 지닌 음식이 있기 마련이다. 문경에는 ‘약돌돼지’가 유명하다.

‘약돌돼지’는 문경시농업기술센터가 연구·개발한 축산브랜드로 문경에서 많이 나는 약돌(거정석: 희귀원소를 함유하여 약리작용을 하는 페그마타이트)을 사료첨가료로 먹여 키운 돼지이다. 문경의 쾌적한 환경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로 사육하여 돼지 특유의 누린내가 거의 없어 요리 후에도 산뜻한 맛을 낸다고 한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입구에 약돌돼지식당과 문경시 모전동에 ‘약돌샤브샤브’라는 식당이 있다. 새재 입구의 식당에서는 약돌돼지의 각 부위를 로스구이로 맛 볼 수 있고, 문경시청이 소재한 모전동에 위치한 식당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한 ‘약돌돼지 샤브샤브’와 ‘약돌돼지 솔잎한방찜’ 요리를

주로 한다.

얇게 썬 고기를 펄펄 끓는 육수에 살짝 데치는 정도로만 익혀서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인 샤브샤브는 고기의 질과 육수가 맛을 좌우한다.

‘약돌돼지 샤브샤브’에 쓰는 육수는 약돌(거정석)을 하루 동안 담갔다가 그 물을 육수로 쓴단다. 얇게 저민 약돌돼지를 버섯과 야채와 함께 끓는 육수에 살짝 담궈 익혀 먹는 맛이 그만이다. 돼지고기를 샤브샤브 재료로 쓰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은 맛을 보는 순간 사라졌다. 약돌돼지는 누린내가 나지 않는다는 소개를 뒤늦게 떠올렸다.

‘술잎 한방찜’은 바닥에 술잎을 가득히 깔고 그 위에 약돌돼지 삼겹살과 족살을 올리고 몇 가지 한약재와 인삼, 새송이, 호두, 마늘, 은행 등 13가지 재료를 더해 함께 찜냈다. 은은한 술향과 함께 열은 한약 내음이 느껴지면서 쫄깃하게 씹히는 고기 질감이 그만이다.

문경에 가면 ‘약돌돼지 요리’를 맛 보는 것은 어떨까. 





잘못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가 뱃살을 늘린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추운 날씨로 인한 활동부족으로 평소보다 불어난 몸매에 위기감을 느낀다. 필요 이상의 지방과 가스로 불룩해진 배... 다른 부분과 달리 뱃살이 찌는 것은 꼭 남아도는 열량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의 반증인 경우가 많다. 습관만 바꾸어도 훨씬 날씬해진 배를 경험할 수 있다.

* 먼저 소금 섭취를 줄인다.

유명 모델들은 촬영 전날 소금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소금이 몸을 붓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금은 몸의 세포들이 물을 잔뜩 머금도록 만들어 소금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 수록 쉽게 붓게 된다. 잘 붓는 사람이라면 모든 음식을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보자.



* 과당 섭취를 줄인다.



과일을 먹고 속이 더부룩했던 경험이 있는지... 과일과 꿀 등에 들어 있는 과당이 몸 안에서 가스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화기관은 한번에 소량의 과당만을 소화할 수 있고, 초과된 과당은 가스의 원인이 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스나 팽만감을 자주 느낀다면 과당의 섭취를 줄여보자. 과일, 주스, 꿀 등을 평소 먹던 양의 반 정도로 줄인다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

긴장하고 있을 때 뇌는 부자연스럽게 소화를 촉진하거나 느리게 하기도 하고 변비나 설사를 유발시키는 물질을 배출한다. 스트레스가 쌓일 땐 기분을 이완시킬 만한 시간을 갖고 허브차를 한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페퍼민트는 소화와 연관되어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서 정상적인 소화를 돕는다.

* 적당한 운동을 한다.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해주는 기능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음식이 소화기관을 빨리 지나치게 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변비에 걸리거나 복부 팽만감으로 불쾌감을 느낄 염려도 없다. ➡




영덕 대소산 봉수대(盈德 大所山 烽燧臺)



- 종 별 : 기념물 제37호
- 지정일 : 1982. 8. 4
- 소재지 :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산20

봉수대가 위치한 해발 282m의 대소산은 영해와 축산을 잇는 해안에 형성된 산괴(山塊)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다. 봉수대는 대소산의 최상봉인 동봉에 축조되어 있다. 구조를 보면, 동봉의 지형을 이용하여 직경 약 20m되는 넓이의 둘레에 축대를 쌓아올려 봉수대를 마련했다. 축대는 대소형(大小形)의 할석(割石)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쌓아 올렸으며 높이는 남쪽이 약 2m, 서쪽이 약 1.6m가량 잔존하며 서쪽 안부(鞍部)에 연결되는 부분은 방형으로 돌출되어 나직한 축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봉수대 중앙부에는 역시 석축으로 된 연통이 구축되어 있다. 연통의 외형은 단경 10m, 장경 12m에 높이가 약 3m되는 원통형이며, 구조는 대소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두께 1.5m되는 석축벽으로 돌려 쌓았다.

그리고 동봉, 서봉과 안부를 포함한 그 외곽은 가느다란 타원형으로 쌓은 돌담을 돌려 두고 있다. 돌담은 할석으로 쌓아 올렸으나 거의 붕괴되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고, 길이는 장축이 약 120m이고 가장 좁은 안부에서는 단축이 약 2m이다. 이 돌담 외측은 자연 경사를 이루고 있다. 봉수대 외곽을 돌리고 있는 보벽(保壁) 내에는 서봉에 조선시대 외편이 산재하고 있어 건물지임을 추정케 하고 안부 남사면은 장변 11m, 단변 4m의 석축 담장이 방형으로 둘러져 있다.

이곳은 남쪽으로는 별반 봉수대, 북으로는 해평의 후리산 봉수대, 서로는 광산 봉수대를 거쳐 진보의 남각산 봉수대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곳은 주변의 여러 봉수대 가운데 형태가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어 조선시대의 통신수단을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젊은 인력의 농촌 유입 위한 농업인턴제 실시

경상북도에서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업인턴제(Internship)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처음으로 16명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연수농가에 대해서도 500만원을 부담하여 농업 신기술을 습득토록 할 계획이다.

도내 종합문화예술회관 4개소 착공

경상북도는 지역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국·도비 등 257억원을 투자하여 군위·청송·울진·울릉 등 4개 지역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착공한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

199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그동안 꾸준한 지원대상 확대와 규정 완화로 수혜의 폭을 넓혀 왔으나 지난해까지는 경작규모가 1.5ha 미만인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시행키로 했다.

「2005년도농정시책 설명회」개최

경상북도에서는 1월 20일 도 농업인회관 강당에서 도와 시·군 농업관련 공무원, 농업인단체 대표, 선진 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DDA/FTA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2005년도 농정시책 설명회와 농업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포항의료원,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상 수상

지방공사 경상북도포항의료원은 1월 28일 제2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200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한편 관리부장인 강현수씨가 노인전문병원 유치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북도 인도시장개척단 큰 성과

경상북도가 올해 첫 시장개척활동으로 지난 1월 23일부터 11일간 일정으로 인도의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시 등 3개 지역에 도내 11개 중소기업체로 구성된 인도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총 18억7천9백만불의 계약과 4,911불의 상담성적을 올리고 인도의 북부 서부 남부의 3대 상권에 지역업체의 수출거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지원 확대

경상북도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하여 올해에도 도비와 시·군비 28억원을 확보하여 보험료의 20%를 지원키로 하였다. 지난해 재해로 보상을 받은 농가는 2,605농가에 117억원이 지급되어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였다.




실·국 명칭변경과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 조정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1월 14일 제195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성장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과학정보산업국’을 신설하고, ‘건설재난관리국’을 ‘건설도시재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실·국의 명칭변경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했으며, 아울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처리로 경상북도의 지방공무원 정수의 총수는 기존 3,835명에서 3,861명으로 26명이 증원되었다.

도내 재선충 피해지역 현지확인 실시

교육환경위원회는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동안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일대와 경주시 양남면 수림리 일대의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고 있는 재선충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합리적인 방제대책을 강구코자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의정활동 지원인사와 정책과제발표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2월 1일 경산 상대온천 세미나실에서 도의회 고문변호사와 자문교수와 의장단,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와 함께 2005년도 경상북도의회 지원인사 운영방향과 자문교수 연구논문집 발간에 따른 경북발전 정책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독도 관련 결의문 채택, 2005년도 각 실·국 업무보고 받아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실·국별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관련 규탄 결의문 채택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외국 지방의회와 친선교류 활성화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의회,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의회와 친선교류

나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과 채희영 경제문화위원회장은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의회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의회를 방문하고 친선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폭설피해지역 현지확인 나서



농정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갑작스럽게 내린 집중폭설로 도내 동해안 일부지역의 화훼, 부추, 시금치 재배 시설하우스 등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3월 9일 영덕군 영해면을 비롯한 포항시 송라면, 경주시 탑정동 등 도내 폭설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도의회 차원의 복구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피해복구에 노고가 많은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고문변호사에 위촉장 교부, 의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의회는 3월 10일 의장실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의정에 관한 정책발전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김인수(대구), 금태환(포항), 황우하(경주), 서안교(김천), 최창덕(대구) 변호사 등 5명이며, 위촉기간은 2005년 3월 7일부터 2007년 3월 6일까지 2년이다. 고문변호사는 도의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세미나 참여, 의회보 기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시마네현 의원연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파기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9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도정 전반에 대해 도정질문을 실시하였으며, 3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일본국 시마네현간 자매결연 철회의 건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기대회



경상북도의회는 3월 16일 오전 도의회 전정에서 도의원 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시마네현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통과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 일장기를 소각하고 윤경희(청송), 이상태(울릉), 황상조(경산) 도의원 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을 규탄하는 식발식을 갖기도 했다. 

**방대선(행정사회위원회) 의원**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 즉각 파기 촉구, 지난 해 농촌지역 오염방지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농도 배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효과와 앞으로 계획,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지원할 용의, 농촌지역의 폐비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경북 쌀의 브랜드화 추진 실적,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경북도의 노력과 성과는, 도 산하 사업소를 일선 시·군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에 관해 질문했다.

**장미향(교육환경위원회) 의원**

지역특화발전 특구 육성대책, 경북의 매력과 장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경북의 브랜드 슬로건을 도입할 용의, 농가도우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와 영농도우미제도 조기 실시, 여성농업인이 농업단체의 임원과 대표위원 등 의사결정 기구에 일정 비율 참여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여성농업인센터 확대설치와 농촌여성 전용 문화센터의 설치를 추진할 방안, 도립대학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우성호(경제문화위원회) 의원**

경제자유구역, R&D특구, 태권도공원, 축구센터 등의 입지선정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 우리 도에 이전될 공공기관의 시·군 입지선정 기준 및 절차, 경북 북부권 교통망 개선에 대한 견해,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의 개선 방안, 농촌 고령화 대책, 세분화된 농민단체의 적정 통폐합 방안, 쌀전업농 육성지원대책, 농촌지역 행정구역의 통폐합에 대한 견해 등을 질문했다.

**이호근(건설소방위원회) 의원**

낙동강 수변지역 문제점과 임하호 탁수와 관련한 피해대책, 광역 시외버스 노선조정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보전금 제도를 지역실정에 따라 개선할 용의, 도 보조금 지원시 재정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보조금차등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용의 등에 관해 질문했다.



김병진(기획과학위원회) 의원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인구의 감소에 대한 경북도의 중장기적인 전략과 대책, 케이블TV의 채널사용사업자로서 ‘경북채널’을 운용할 의향, 중고 생활용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명 ‘경상북도 물물교환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용의, 도내 각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 23개 시·군에 도 산하기관이나 사업소의 배정 현황, 대구시에 소재한 도 사업소나 기관을 도 산하 기관이 없는 시·군에 이전할 전략 등에 대해 질문했다.

부산·경남 공영개발공사 사업장 현지방문

기획과학위원회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부산광역시의 가덕도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현장과 경남 사천서부침단 단지와 진사일반산업단지 조성현장, 그리고 경남 창녕 공영개발사업현장 등 타 시·도 공영개발 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공기업 운영에 대한 장·단점과 경영현황 자료를 수집하였다.



재해·재난 예방 위한 현지확인 실시



건설소방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의 성소방서를 비롯하여 영천의 임고-죽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영천시 임고면)과 가창-각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청도군 각남면), 벽진-초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성주군 벽진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재해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방과 대응책 구축 상황을 점검하였다.

정책건의

도민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지역발전사항

학술논문

IDEA

도정혁신 아이디어 대상 공모

도민들의 창의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를 널리 공모하여 도정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기간 2005. 3. 1 ~ 10. 31

» 공모내용 2개부문(도민, 공무원)
• 정책건의 및 지역발전사항,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사항 등

» 응모자격 전 도민 및 도 소속 공무원

» 응모방법

• 행정기관 민원실 등에 비치된 응모서를 이용하거나 도청홈페이지 활용

• 우편, FAX, 인터넷 등 편리한 방법 이용

• 주소 : (우)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경북 아이디어 대상 담당자 앞

• FAX : 053) 950-2302

• 도청 홈페이지 : www.gyeongbuk.go.kr / (열린도정 공모과제)

» 시상내역 도민, 공무원 각 부분별 시상

• 대상(각 1명)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금상(각 2명)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상(각 2명)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동상(각 3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심사 및 시상

• 관련 전문기관 : 부서 심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의 결정

»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채택된 아이디어의 사용권리는 도에 귀속됨.

• 접수된 아이디어 중 우수작이 없을 경우 포상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054-950-2934)로 문의 바람



Best



2004투자유치 전국 최우수 기관선정 - 대통령표창수상

Investment

Partner

**최고의 투자환경,
다양한 인센티브**

**투자 할 곳을 찾고 계십니까?
경상북도로 오십시오**

수도권, 중부권 등 전국어디에서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풍부한 연구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북아시대 중추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북에 투자하십시오
세계일류기업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상담 : 경상북도 투자유치과 053-950-3866
E-mail : invest@gb.go.kr

 **경상북도**
www.gb.go.kr